

국립태권도박물관, '기증자 공간' 공개

태권도 역사 이해 돕고 기증 문화 활성화 위해 조성... 270점 시작으로 기증 유물·자료 순차 전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국립태권도박물관 상설전시실 내에 기증 유물과 자료를 전시하는 '기증자 공간'을 새로 단장해 공개했다.

기증자 공간은 국립태권도박물관 기증자료를 순차적으로 관람객들에게 소개하는 곳으로 태권도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먼저 270점을 시작으로 기증 유물과 자료를 순차적으로 전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곳에는 서상렬(세계무덕관연맹 초대 총재) 사범이 기증한 1950년대 무덕관 도복, 주월 한국군 태권도 교관단이었던 류시환 사범이 기증한 월남 한국군 태권도 교관단 자료 등 1950년대부터 국기 태권도를 알리고 발전시킨 여러 기증자들의 자료를 만날 수 있다.

또한 기증자와 기증품을 검색할 수 있는 키오스크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서도 많은 공을 들였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기증자 공간은 국립태권도박물관 소장 자료를 공개하고 기증자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태권도진흥재단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가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



태권도진흥재단은 국립태권도박물관 상설전시실 내에 기증 유물과 자료를 전시하는 '기증자 공간'을 새로 단장해 공개했다.

도록 노력하는 등 태권도 정통성 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원로사범님 등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 관련 유물과 자료 등에 대한 기

증 문외는 국립태권도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태권도진흥재단 국립태권도박물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 이끌 예술인재 찾아요”

전북도어린이예술단 신규단원 모집

예향의 향기가 물어나오는 전북도가 2024년도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을 이끌어 갈 신규단원을 모집한다.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은 음악예술에 관심 있는 어린이가 예향의 도시 전북을 이끌어 갈 지역음악 예술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창단되었으며, 국내외의 다양한 연주활동을 통해 그 기량을 뽐내고 있다.

음악예술 인재를 꿈꾸는 도내 재능있는 아이들이 어린이예술단활동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술단원, 예비단원, 견습생 교육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전북도 및 전북도립국악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응시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초등학교 2학년부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이다.

27일 실기 및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단원은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매주 1~6시간씩 파트별 오케스트라 합주 교육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예술단원의 경우, 각종 기획공연과 해외초청공연 등 다양한 무대 활동 참여 기회가 주어지며, 연 3회의 음악캠프 교육 등 전북도립국악원 내 예술단과의 교류 및 다양한 연계활동도 진행된다.

예비단원은 저학년 아이들의 개인 기량 및 합주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단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예술단원으로 승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견습생은 평소 음악에 흥미는 있으나 음악교육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초 실기교육을 진행하고 잠재적인 음악성을 발굴하여 향후 지역예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립국악원 운영팀(063-290-644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시민과 함께 읽을 '전주 올해의 책' 선정 착수

시, 16일까지 추천위원 공개 모집

책의 도시 전주시가 올 한해 시민들과 함께 읽을 '2024 전주 올해의 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전주시는 오는 16일까지 2024년 전주를 대표할 책을 추천하는 '2024 전주 올해의 책' 추천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전주 올해의 책'을 시민과 함께 선정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등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독서 생활화 운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추천위원은 도서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서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중학생 이상 시민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시는 내부 심사를 거쳐 약 15명 정도의 추천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

추천위원들은 주제별·장르별로 다양한 도서를 검토한 후 전주 올해의 책 추천 기준에 부합하는 도서 5권씩을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희망자는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khy18245@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추천위원 선정자에게는 전주 올해의 책 연계 프로그램 우선 참여의 기회가 제공된다.

시는 추천위원으로부터 추천받은 도서 중 전주독서대전 실무기획단 선정위원 회의를 거쳐 12권의 후보도서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주간 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총 4부문 4권

(어린이(그림)·어린이(글)·청소년·일반 1권씩)을 2024 전주 올해의 책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전주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는 오는 4월부터 △독서릴레이 △100일 필사 △작가와와의 만남 △가족 독서 골든벨 등 '2024 전주독서대전'과 연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시 주제 도서 등으로 활용된다.

이강준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전주 올해의 책 선정을 통해 전주시민이 함께 읽고 즐기도록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면서 "2024년 전주시를 대표할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CES 2024 KOCCA 공동관 현장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콘진원 지원 기업 9곳, CES 혁신상 수상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미국 리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4에서 콘진원이 지원하는 국내 기업 9곳이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식회사 닷, 캠퍼스터즈, 암트리 리얼리티, 인트플로우 주식회사, 리버터 에이아이, 오노마 AI, 리얼디자인테크, 인디제이, 포바이포 등 9개 기업이다.

수상 기업들은 콘진원의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해당 사업을 통해 시각 장애인 대상 전시·예술품 관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멀티 모달 단말기술을 개발한 주식회사 닷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보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콘진원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CES에서 코카(KOCCA) 공동관을

운영한다. 공동관에는 국내 콘텐츠산업 분야 총 15개 기업이 참가해 인공지능(AI), 사스(SaaS), 가상현실, 확장현실(XR) 등 최신 기술과 콘텐츠를 세계 시장에 소개하고 잠재적인 생태계 파트너와 투자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관에 참가하는 기업은 혁신상을 수상한 포바이포, 인디제이를 비롯해 소울엑스, 플룸디, 네모즈랩, 아도바, 디알렘 인사이트 등이다.

또, 콘진원은 오는 10일(현지시간) CES 2024와 연계한 '코카 나이트(KOCCA Night)'를 개최한다. 코카 나이트는 현지 VC와 엑셀러레이터, 국내 금융계 등을 포함한 70여명의 인사가 참여해 이번 공동관 참가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교류하는 자리다. /뉴시스

문화재청, 국가유산 분야 '문화재산업 조사' 첫 실시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산업에 대한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에 있는 1인 이상 국가유산 분야 사업체 1500개를 대상으로 문화재산업 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는 내달 말 공개할 예정이다. 문화재산업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통계로 승인을 받았다. 이는 문화재청 조사통계로는 국가승인을 받

은 첫 사례다.

문화재청의 국가 승인 보고통계는 2006년 승인된 문화재관리현황에 이어 이번에 문화재산업조사까지 총 2건이다.

조사 결과 공표는 오는 2월 말 국가통계 포털과 문화재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제10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1월 17일(수)~1월 18일(목)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주최 및 주관: 전주매일신문사
전라북도스키협회

후원: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 덕유산리조트

****참가 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사)